

2015. 9. 28. ~ 10. 4. 주간

53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방울토마토, 백다다기오이 재배의향 속보

전남 시군 농정동향

여수시, 동백화장품 3종 세트 출시
해남군 아열대 기능성 작물 암빈 수확!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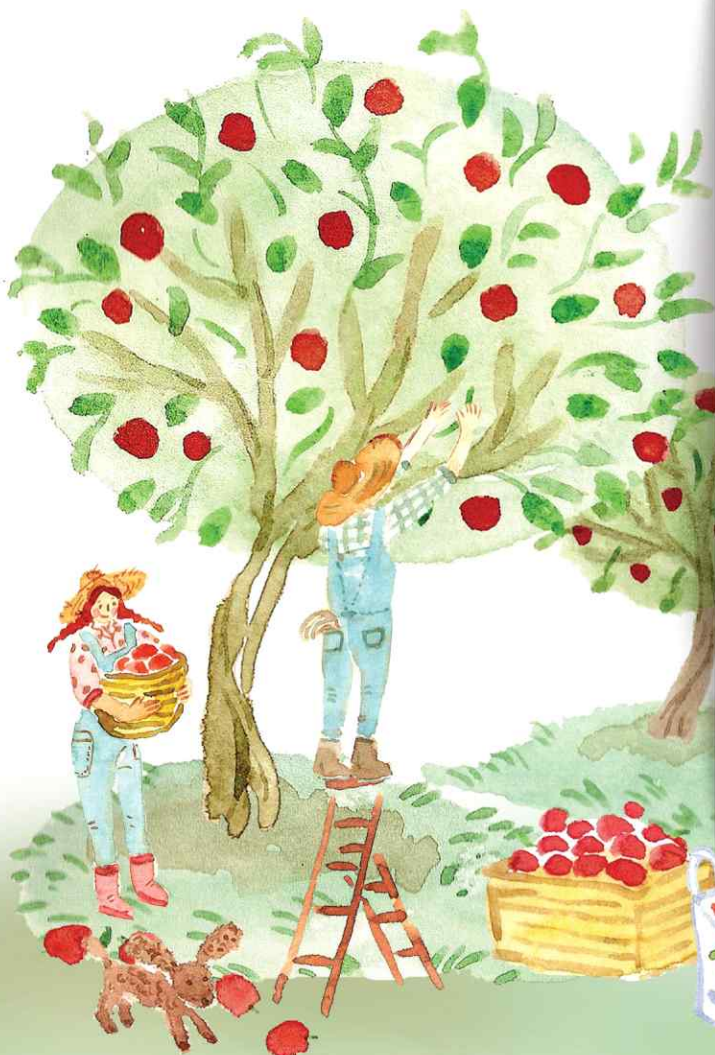
국산 홍차 품질고급화로 유럽시장 가다.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의 사과·배 보급 나선다.
곰팡이 이용 토마토 발생 담배가루이 방제 기술 선된다.

정책동향

농식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브랜드 개발 무료 상담회' 개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농산물 新유통 포스몰 뜬다!”

해외 농업정보

캐나다, 케일 등 슈퍼푸드 인기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2015. 9. 30)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7도, 최고기온: 22~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으며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해상에서 8~9일에 1~3m로 높게 일겠음

❁ 농작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방울토마토, 대추형 방울토마토 정식의향 감소세 전환
- 백다다기오이, 9~10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증가, 11월은 비슷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양배추 · 당근

- 양배추 : 출하량 감소로 작년(3,108원/8kg)보다 높을 전망
- 당 근 : 작년과 비슷하지만 평년(41,849원)보다는 낮을 전망

▶ 과 채 : 청양계꽃고추 · 일반꽃고추

- 청양계꽃고추 : 작년보다 낮은 2만2천~2만7천원/10kg 으로 전망
- 일반꽃고추 : 작년보다 낮은 2만3천~2만8천원/10kg 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 ▶ 여수시, 동백화장품 3종 세트 출시
- ▶ 해남군 아열대 기능성 작물 양빈 수확!
- ▶ 천연 조미료로 부농꿈, 진도 20대 처녀농군 콕그루 대표
- ▶ 완도 노지감귤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실시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산 포도, 중국으로 첫 수출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 “태국에서 갓세븐 뽕뽕과 함께 하는 K-Food데이 개최”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국산 홍차 품질고급화로 유럽시장 가다.
- ▶ 동애등에 분변토 비료로 판매된다.
- ▶ 껌질째 먹는 중간 크기의 사과·배 보급 나선다.
- ▶ 곰팡이 이용 토마토 발생 담배가루이 방제 기술 선봬다.
- ▶ 도농기원 파프리카 「헤스티아」 품종 출원
- ▶ 우량종구 선별로 고품질 마늘 생산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강진 전통된장 백정자,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 선정
- ▶ 전남도,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124천톤 매입
- ▶ 농식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브랜드 개발 무료 상담회' 개최
- ▶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농산물 新유통 포스몰 뜬다!”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캐나다, 케일 등 슈퍼푸드 인기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적 밀 풍작, 수출 경쟁 강화 등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하락 마감함. 12월 밀 가격은 50일 이동평균 부셸당 5달러 안팎을 맴돌고 있음
 - 옥수수 선물가격은 쇼트커버링과 매도세로 상승함. 옥수수 주산지 지역 강우 지연 예보와 미국 옥수수 수확 제한 랠리로부터의 상승 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옥수수 12월물 100일 이동평균 가격은 부셸당 3.88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대두 선물가격은 USDA의 분기별 재고 보고를 대기하며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상승하였으나, 미국과 세계 대두 풍작에 대한 영향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2016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공모사업 발굴 신청

- 사 업 량 : 전국 7개소(도별 3개소 신청가능)
- 사 업 비 : 7억원(개소당)
 -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 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검토내용
 - 반가공업체 사업 신청 안내 후 국산원료사용
 - 3년간 경영실적, 식품안전성 확보 적절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 후 농식품부 신청(10. 2일까지)

▶ 꽃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추진배경 : AI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유통농장에
대한 감염여부 확인 일제검사 추진
- 기 간 : 9. 17. ~ 10. 24.(1주간)
- 대 상 : 89개소(가금판매소61, 유통농장28)
- 심사항목 : 항원 검사
- 심사시료 : 구강, 분변, 환경시료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9. 30.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9/30)	전주 (9/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1,960	40,920	↓ 5.1	↓ 2.7
	콩(백태)	35kg	137,000	137,000	137,000	141,200	192,340	↓ 3.0	↓ 28.8
	고구마(밤)	10kg	22,400	22,400	27,880	22,880	25,920	↓ 2.1	↓ 13.6
	감자(수미)	20kg	24,600	25,000	25,280	21,920	27,267	↑ 12.2	↓ 9.8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660	640	678	689	979	↓ 4.2	↓ 32.6
	양배추	10kg	6,500	6,300	7,040	4,460	8,573	↑ 45.7	↓ 24.2
	오이(다다키계통)	10kg	20,000	20,333	21,667	16,044	27,903	↑ 24.7	↓ 28.3
	애호박	8kg	12,000	15,200	15,080	9,320	19,253	↑ 28.8	↓ 37.7
	토마토	10kg	28,800	28,800	19,160	31,880	38,307	↓ 9.7	↓ 24.8
	무(고랭지)	20kg	10,000	9,400	11,160	12,080	14,993	↓ 17.2	↓ 33.3
	당근	20kg	34,800	33,600	31,240	55,080	48,417	↓ 36.8	↓ 28.1
	건고추(화건)	60kg	830,000	830,000	814,000	886,000	900,667	↓ 6.3	↓ 7.8
	풋고추	10kg	27,000	26,600	24,240	36,200	40,533	↓ 25.4	↓ 33.4
	마늘(난지)	10kg	47,000	47,000	45,080	33,400	36,220	↑ 40.7	↑ 29.8
	양파	20kg	28,000	28,000	28,080	10,584	17,667	↑ 164.6	↑ 58.5
	대파	1kg	1,890	1,870	1,982	1,180	2,102	↑ 60.2	↓ 10.1
	파프리카	5kg	24,000	26,000	17,400	31,280	33,737	↓ 23.3	↓ 28.9
	방울토마토	5kg	14,400	14,200	14,560	13,600	21,153	↑ 5.9	↓ 31.9
	수박	1개	13,400	11,400	14,120	8,840	11,313	↑ 51.6	↑ 18.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9/30)	전주 (9/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과 일 류	사과(홍로)	15kg	62,000	58,600	72,160	45,040	51,100	↑37.7	↑21.3
	배(신고)	15kg	44,200	41,600	30,200	27,760	38,413	↑59.2	↑15.1
특 용 작 물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0,000	524,000	554,867	↑ 1.1	↓ 4.5
	들깨	45kg	422,000	422,000	420,000	434,800	337,600	↓ 2.9	↑25.0
	새송이버섯	2kg	9,400	8,600	7,880	7,720	8,925	↑21.8	↑ 5.3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566	7,506	7,304	6,703	6,683	↑12.9	↑13.2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58	1,972	2,162	2,040	1,821	↑ 0.9	↑13.0
	닭고기	1kg	4,798	4,598	5,120	5,361	5,638	↓10.5	↓14.9
	계란(특란)	30개	5,650	5,687	5,755	5,833	5,583	↓ 3.1	↓ 1.2
	우유	1리터	2,547	2,547	2,547	2,547	2,358	↑ 0.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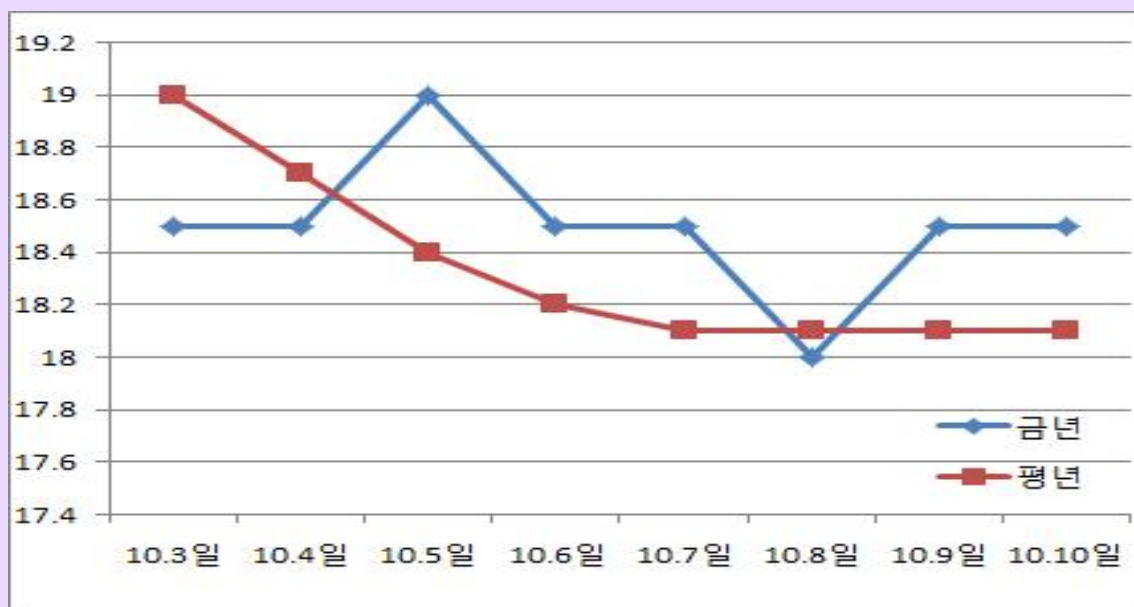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8.5	18.3	0.2	23.0	23.7	-0.7	14.0	14.2	0.1	2.0
10. 3.(금)	18.5	19	-0.5	22	24.2	-2.2	15	15.1	0.1	2
10. 4.(토)	18.5	18.7	-0.2	23	23.9	-0.9	14	14.7	0.7	1.9
10. 5.(일)	19	18.4	0.6	24	23.7	0.3	14	14.4	0.4	1.8
10. 6.(월)	18.5	18.2	0.3	23	23.5	-0.5	14	14.2	-0.2	1.8
10. 7.(화)	18.5	18.1	0.4	23	23.5	-0.5	14	13.9	0.1	1.8
10. 8.(수)	18	18.1	-0.1	23	23.6	-0.6	13	13.8	-0.8	1.7
10. 9.(목)	18.5	18.1	0.4	23	23.5	-0.5	14	13.9	0.1	2.5
10. 10.(금)	18.5	18.1	0.4	23	23.5	-0.5	14	13.9	0.1	2.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방울토마토·백다다기오이 재배 동향

□ 방울토마토, 대추형 방울토마토 정식의향 감소세 전환

- 9월 원형 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은 충남 공주에서 오이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1% 감소하는 반면, 대추형은 전남 담양에서 품종 전환하려는 의향이 높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11월 원형 방울토마토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나, 대추형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익산에서는 일부 농가가 대추형으로 품종 전환하려는 의향이 높으나, 정식비중이 높은 충남 부여, 논산에서는 최근 낮은 대추형 방울토마토 가격으로 인해 다시 원형으로 되돌아가려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백다다기오이, 9~10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증가, 11월은 비슷

- 9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공주에서는 토마토 재배농가가 백다다기오이로 일부 작목 전환이 있겠으며, 충남 천안에서는 재배면적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여수, 해남의 일부 농가에서는 취청오이로 품목전환이 있겠으나, 경북 상주에서는 신규재배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정식면적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억제작형 확대로 축성재배면적이 일부 감소하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양배추 · 당근

○ (양배추)

- 10월 양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3,108원/8kg)보다 높을 전망이다.

○ (당 근)

- 10월 당근 20kg당 도매가격은 고랭지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33,610원)과 비슷하지만 평년(41,849원)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과 채 : 청양계꽃고추 · 일반꽃고추

○ (청양계꽃고추)

-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4만7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2천~2만 7천원으로 전망된다.

○ (일반꽃고추)

- 9월 녹광꽃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5만 3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3천~2만 8천원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여수시, 동백화장품 3종 세트 출시

- 선물용 3종 세트 출시로 여수대표 관광 상품화 -

- 지역 부존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여수동백화장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위탁기업인 엘엔케이(L&K)와 협력하여 여수동백 3종 세트를 출시하고 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지난해 동백제품 전문기업인 엘엔케이(L&K)와 여수동백화장품의 생산·판매사업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여 여수동백의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으며, 아울러 동백화장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로 매출액의 5%를 세수로 거둬들이고 있다.
- 이번에 출시된 ‘여수동백 3종 세트’는 여수의 동백기름에서 고밀도 천연정제 방식으로 추출한 동백정제오일을 함유한 제품이다. ‘천연동백오일’, ‘동백수분크림’, ‘동백클렌징폼’ 3종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특히,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한 올레인산의 함유량이 높아(84%이상) 피부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백오일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시는 앞으로도 엘엔케이(L&K)와 지속적인 상품개발 협력을 통해 여수동백을 원료로 한 마스크팩, 샴푸, 바디워시, 썸크림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등 해외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 해남군 아열대 기능성 작물 양빈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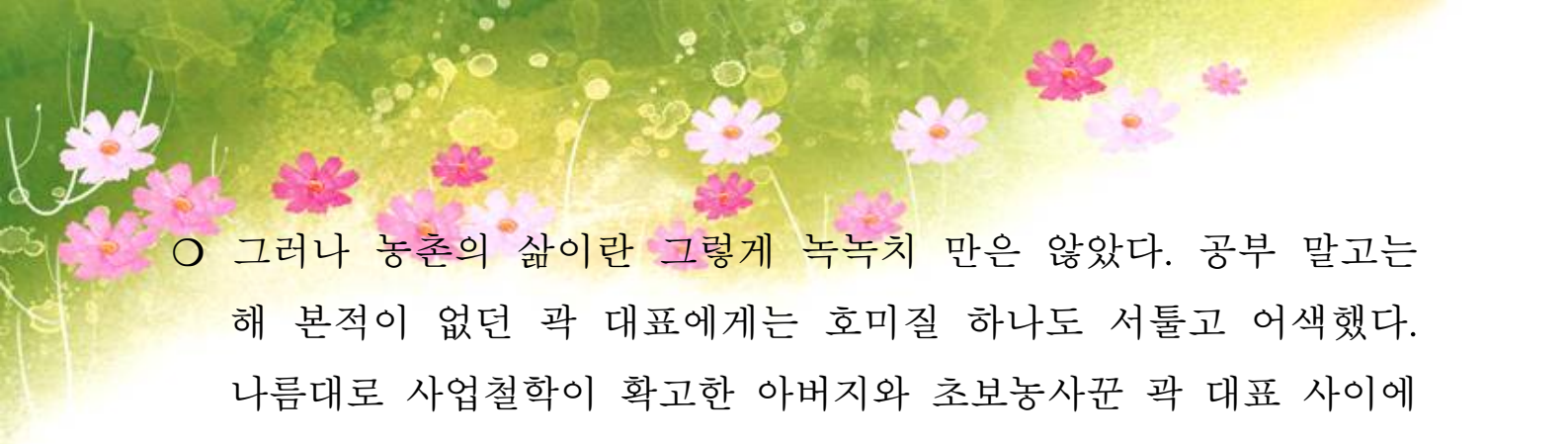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아열대작물인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양빈이 한창 수확으로 5농가에 15,000m²에서 수확하고 있다.
- 양빈은 히카마로 불리우기도 하며, 원산지는 멕시코 등 중앙아메리카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멕시코, 태국, 중국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양빈은 배, 감자 고구마, 마, 무 등의 다양한 맛을 지녀 샐러드, 깍두기, 튀김, 나박김치,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열량이 100g당 40kcal로 저열량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도 좋아 현대 도시인에게 딱 맞는 식품으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시 소비자의 양빈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하여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세정아울렛에서 시식회를 추진결과 소비자 소비의향 조사결과 응답자 106명중 96명이 구입의사를 표시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 적정 재식밀도, 유인방법, 저장방법 등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자체브랜드를 만들어 지역특화작목으로 확대보급 할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 천연 조미료로 부농꿈, 진도 20대 처녀농군 콕그루 대표

-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진도 특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료 개발에 나서 -

- 진도대교를 지나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작은 마을 군내면 송산리, 이곳에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부모님의 대를 이어 진정한 농사꾼이 되기 위해 2015년 창업한 젊은 여성청년 농부가 있어 화제다.
- 주인공은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 추진하는 농촌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을 통해 진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천연조미료 개발에 나선 '진도농부 미스팜' 콕그루(25) 대표.
- 이제 겨우 스물다섯, 대학을 졸업한지 채 1년도 안됐지만 지금은 '진도농부 미스팜'의 어엿한 대표이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진도에서 농사를 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대형식품회사에서 멋진 상품을 만드는 기획자가 되겠다며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그녀였지만 귀농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찰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던 십년지기 친구가 스물 넷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 그 친구가 콕 대표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억지로 힘들게 살지마!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 였다.
- 친구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동안 치열한 도시생활과 여유로운 농촌생활을 두고 저울질 하던 그의 진로에 답을 주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는 부모님이 계신 진도로 향했다.

- 
- 그러나 농촌의 삶이란 그렇게 녹록치 만은 않았다. 공부 말고는 해 본적이 없던 껍 대표에게는 호미질 하나도 서툴고 어색했다. 나름대로 사업철학이 확고한 아버지와 초보농사꾼 껍 대표 사이에 잦은 의견 충돌도 문제였고, 번듯한 대학까지 졸업하고 시골로 내려온 껍 대표에게 당연한 듯 쏟아지는 ‘취업실패생’, ‘일 없으니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한심한 청춘’이란 주위 사람들의 편견 또한 그를 괴롭혔다.
 - 그는 우선 농사에 대한 경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전남농업기술원, 진도군농업기술센터, 한국벤처농업대학 등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그리고 대학시절 창업동아리에서 활동과 여러 기업에서 마케팅 관련 인턴과 대외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한 농촌이기에 가능한 아기자기한 일상들을 매일같이 블로그를 통해 올려 인맥관리에도 주력했다.
 - 그런 그의 노력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2015년 ‘천연조미료’ 아이템으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농업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받게 되었고,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지원도 받게 된 것이다.
 - 그는 1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조리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조미료를 찾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진도에서 생산되는 콩, 들깨, 울금 등 농산물과 멸치, 다시마 등 해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료 선물세트 개발에 나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금년매출 3천만원, 2018년에는 1억 매출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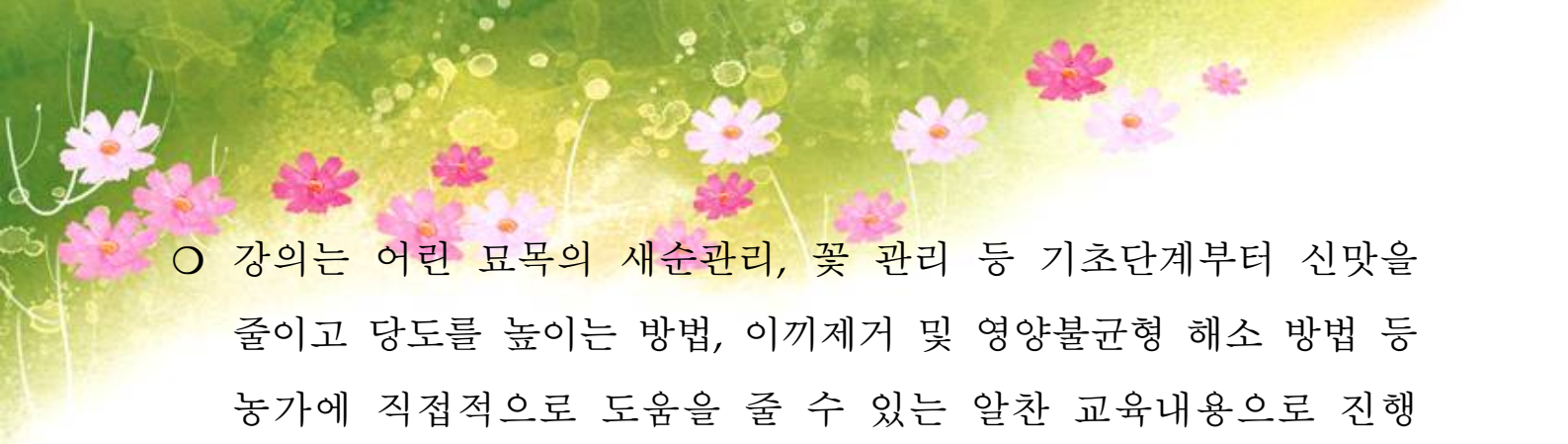
- 광대표는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청년들은 도시에서의 삶을 열망하고 있다. 그런 청년들에게 시골이 괜찮은 이유, 농업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기회가 많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알리고 싶다”고 말하고, “천연조미료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자색고구마 사업을 추진하여 자색고구마의 장인이 되어 한국에 고구마 학교를 세우는 것” 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완도 노지감귤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실시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작목으로 육성, 새로운 특산품 성장 -

- 완도군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농업인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지난 23일, 완도군 소안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완도노지감귤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이 열렸다.
- 이번 교육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한승갑 연구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 기후변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제주도로만 상징되었던 감귤류와 부지화가 몇 해 전부터 완도 소안도와 군외면에서 지역특화작물로 이미 농가의 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

- 
- 강의는 어린 묘목의 새순관리, 꽃 관리 등 기초단계부터 신맛을 줄이고 당도를 높이는 방법, 이끼제거 및 영양불균형 해소 방법 등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알찬 교육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교육에 참가한 한 농업인은 “소안도에서 감귤류가 재배된지 몇 년 안돼서 경험 부족으로 힘든 점이 있었지만 이번 교육으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다.
 -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맛있는 감귤을 생산해야겠다.”라고 말했다.
 - 위윤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배환경이 조성되면서 감귤이 완도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군에서 추진 중인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을 실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친환경 무농약 재배 인증 획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완도군에서는 감귤과 부지화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대체 작목으로 아로니아, 울금 등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등 꾸준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출처 : 완도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한국산 포도, 중국으로 첫 수출 !

- 9.22일, 천안 거봉 4.8톤·상주 캠벨 5.7톤 등 10.5톤 중국 수출 선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5년 9월 22일, 우리나라 포도가 과실류중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 그간 우리나라 과실은 검역문제로 중국에 수출되지 못했으나, '15.4.29일 한·중간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 되면서 우리나라 과실로는 처음으로 포도의 對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추진경과 : 포도 수입허용 요청('09.5.29) → 한국산 포도 병해충 위험평가 (~'13.5월, 중국) → 한국산 포도 우려 병해충 관리방안 협의('13.6~'15.4월) → 한·중 식물검역회의시 포도 검역요건 최종 합의('15.4.27) → 한·중간 관련 규정 개정 등 수입허용 절차 완료(한국 7.24일, 중국 8.5일)

○ 9.22일 천안 포도 수출단지와 경북 서상주 농협에서 각각 거봉 4,800kg 과 캠벨 5,720kg이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중국 상해를 통해 City/Super 등 중국 슈퍼체인으로 수출된다.

□ '15.8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39.9억불로 엔저·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국가전체 수출은 6.3% 감소)했으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6.8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했다.

○ 우리나라의 신선 농산물 수출액도 '15.8월말 기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과실류의 감소폭도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포도의 경우, '15.8월말 기준 수출액이 1.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고, 이번 중국 수출을 계기로 향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 포도 수출 추이(백만불) : ('13년) 1.7 → ('14) 23 → ('15.8월말) 1.2(전년 동기대비 26.5%↑)
- * '14년 한국 포도 수출국(17개국, 총 583톤/2.3백만불) : 미국 226톤/807천불, 싱가포르 140/440, 홍콩 59/335, 베트남 47/151, 뉴질랜드 36/146 등

□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9.22일 포도의 첫 중국 수출에 앞서 한·중 합동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북 서상주농협 선과장을 직접 방문했다.

○ 이동필 장관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보다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중국과의 농산물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검역이 해소된 품목을 중심으로 K-Food Fair * 등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수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15년 중국 K-Food Fair 개최계획(3회) : 청도(8.28~30일, 기 추진), 시안(9.18~20), 충칭(11.6~8)

□ 현재, 농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에 쌀, 파프리카, 토마토, 참외, 딸기, 단감, 감귤 등 총 7개 품목의 수입허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그 중 우선순위에 따라 파프리카에 대한 검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프라하의 골드, 햄튼 그레인즈는 2016년 생산시설 착공 예정 -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식품전문산업단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계획이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으로 지정된 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제 2공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116천㎡ (약 3만5천평)이다.

○ 농식품부는 향후 450천㎡(약 13만6천평)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체 산업시설 용지면적 : 1,399천㎡(약 42만평)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내 생산시설 부지는 해외 식품 기업들에게 임대방식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 투자기업은 투자조건에 따라 임대료의 75%~100%를 감면받고 50년 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감면), 각종 지방세(취득·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혜택, 투자보조금,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국내기업들에게도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과 투자보조금(100억원에서 200억원)·고용보조금·교육 훈련보조금·근로자정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 아울러, 2016년 중반에 기업지원센터, 기능성 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등이 조성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에게 인력·수출·마케팅 지원 및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 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체코 프라하의 골드, 미국의 햄튼 그레인즈와 웰스프링, 케냐 골드락인터내셔널, 중국의 차오마마와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등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한 해외 식품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동북아 식품시장 및 세계 식품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식품기업들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태국에서 갓세븐 뱀뱀과 함께 하는 K-Food데이 개최”

- 현지 팬 500여명과 함께한 한국식품 체험행사, SNS로 공유 활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9월 19일 태국에서 인기가 높은 GOT7(갓세븐) “뱀뱀과 함께하는 K-Food Day”를 개최했다.
- 금년 상반기 태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63.7%로 전년 동기대비 23.7%가 증가하여 전세계 1위 증가율을 보이는 등 SNS 사용율이 높다. 태국의 젊은 층 대상 K-Food를 홍보하고자 aT 방콕사무소에서는 LINE 공식계정,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SNS 마케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행사는 O2O 마케팅의 일환으로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K-Food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열렸다.
- GOT7은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남자 아이돌로 최근 “딱 좋아”란 곡으로 활동하고 있고, 새 앨범 타이틀곡 “니가 하면”을 발표 할 예정으로 국내외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Pop 그룹이다.
- 뱀뱀은 2014년 태국 내 트위터 멘션 1위로 태국 내 가장 핫한 K-Pop 아이돌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태국인 아이돌로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태국 문화를 양국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밥, 라면, 보쌈 등 다양한 한국 식품과 음식을 좋아하여, 이번 K-Food Day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었다.
- 이번 K-Food Day 행사에서는 뱀뱀과 K-Food를 좋아하는 팬 500여명을 초청하여, 김치와 매콤하게 양념한 불고기를 재료로 한 김밥 만들기 등 K-Food를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멜론, 포도, 복숭아 등의 신선과채류 및 김치, 김스낵, 라면, 음료 등의 한국 식품을 전시하고 시식을 진행하여, 직접 K-Food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이번 행사에서 김밥 만들기 이벤트를 함께 한 Anchasa Sawangkla씨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뱀뱀을 보면서 한국식품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Punyisa Prasanpan씨는 “김치와 매운 불고기를 김밥에 넣어도 이렇게 맛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 행사장 입장 이후부터 팬들은 바로바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올리기 시작 했고, SNS 특성상 태국 방콕에서 지방도시까지, 더 나아가, 미얀마, 이란, 칠레, 인도 등 국경을 넘어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행사 이후에도 aT 방콕사무소는 SNS 채널을 통해 한국 농식품 이벤트 안내, 한식 레서피, 한국 농식품 소재의 웹툰을 공유하는 등 K-Food 팬들과 교감하는 쌍방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유충식 aT 식품수출이사는 “태국 K-Food 팬들이 뱀뱀과 함께하는 K-Food Day를 통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했기를 바란다”며, “LINE 공식계정, 페이스북 등 태국 내에서 파급력이 큰 SNS채널을 활용하여 방콕부터 지방도시까지 폭넓게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국산 홍차 품질고급화로 유럽시장 가다.

- 전남농기원에서 개발한 홍차제품이 이탈리아에서 호평

- 전남농업기술원(최경주 원장)은 국내 차(茶)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그동안 녹차 위주 연구에서 차잎 수확기별로 년중 생산 가능한 홍차 제조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차산업 활성화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 국내 차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산업연구소에서는 녹차 품종 12종을 개발 · 보급 중에 있으며, 유기농 명품 홍차 생산에 적합한 품종 선발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개발한 명품 홍차 제조방법 기술교육을 통해 선도농가가 직접 고품질 홍차를 생산 해외 유럽 시장에 시제품을 보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보성 천보다원 문평식(70세) 사장은 그동안 차산업연구소에서 홍차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금년에 제다한 홍차를 이탈리아로 2회 걸쳐 14,000천원 상당 제품 40kg를 수출하였고, 현지에서 반응이 좋아 재구매 방법과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바이어와 생산량과 적정 제품 가격을 검토하고 있다.
- 국내산 홍차는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최고 품질의 유기농 명품 홍차로 인정받는다면 프리미엄급 가격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에 수출이 가능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차산업연구소 최정 박사는 “앞으로 국내산 유기농 홍차 제품 대량 생산과 전남지역 특산물을 혼합한 다양한 블렌딩 녹차 및 홍차 제품 개발로 차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동애등에 분변토 비료로 판매된다.

- 9월 24일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신규 등록 -

-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의 분변토를 비료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동애등에 분변토는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하고 남은 산물을 말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동애등에의 분변토가 고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제2015-21호)에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로 24일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고시가 발효되는 24일 이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한 뒤 생산한 비료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 이번 고시에는 동애등에 분변토의 공정 규격이 신규로 설정돼 양질의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을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 또한, 이번 신규 등록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동애등에분 처리 시설’도 추가할 수 있다.
- 비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된 동애등에 분변토는 밀, 콩, 시금치, 토마토, 파, 상추 등의 작물 생육 촉진과 작물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 개량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애등에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동물 사료용으로 이용돼 왔는데, 이번에 분변토까지 비료용으로 판매할 수 있어 앞으로 동애등에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1톤에 동애등에 애벌레 약 50만 마리를 투입할 경우 15일이면 동애등에 분변토 700kg (수분 50% 이하)을 생산할 수 있다.
- 동애등에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는 부피는 58%, 무게는 30% 줄었으며, 3일~5일만에 음식물쓰레기의 80%가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동애등에의 소화분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수분이 증발하고 신속한 흡수 분해가 이뤄지기 때문에 침출수나 악취 발생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최지연 연구관은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가 활성화되면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동애등에 분변토의 공식 비료 등록으로 곤충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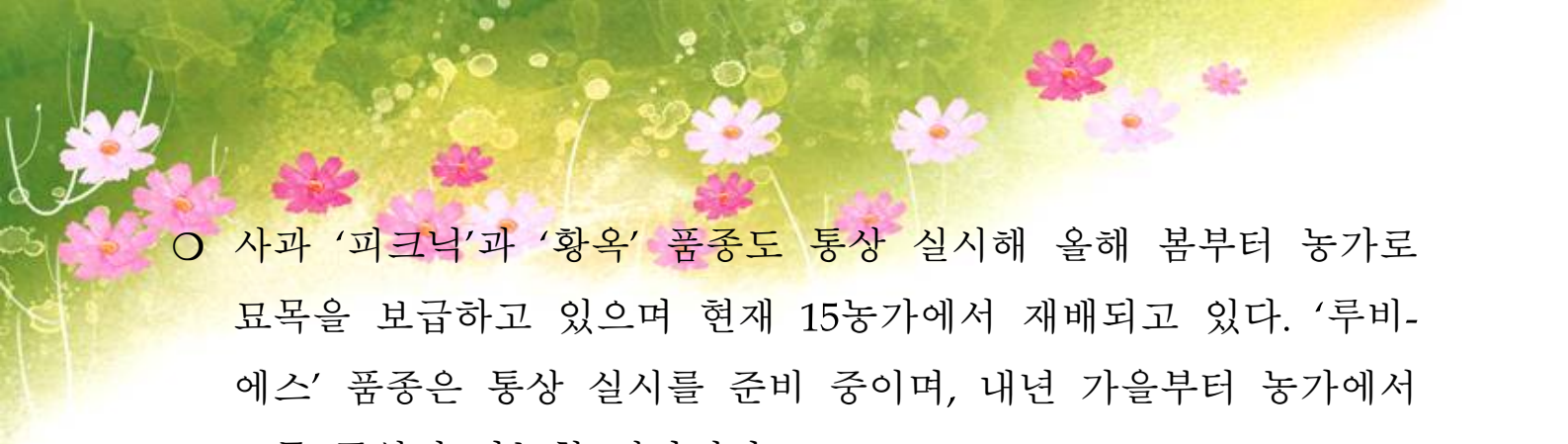
■ 껌질째 먹는 중간 크기의 사과·배 보급 나선다.

- 다양한 특성의 사과·배 품종 개발...소비자 선택 폭 넓어져 -

- 우리나라는 제레 문화의 영향으로 큰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큰 과일보다 중간 크기의 과일로 눈을 돌리고 있다.
- 사과와 배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사과는 큰 것(300g)보다는 중간 크기(250g)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도 일상 소비용으로는 큰 과일(700g)보다는 중간 크기(500g) 이하를 선호했다.
-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크기는 작아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사과와 배 품종을 개발해 본격 보급에 나서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중간 크기의 사과는 6품종으로, 높은 기온에도 색깔이 잘 드는 ‘아리수’, 테니스공 크기인 빨간색의 ‘피크닉’, 황녹색의 ‘황옥’, 여름 사과 ‘썸머드림’, 탁구공 크기만큼 작은 ‘루비-에스’, 수분수 겸용 장식용 사과 ‘데코벨’이 있다.
- 이 품종들은 껍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나들이용으로 좋으며 기내식, 군납, 단체급식용으로도 알맞다.
- 이 사과 품종들은 8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품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재배하는 ‘후지’ 품종과 당도가 비슷해 맛도 좋다.
- 또, 중간 크기의 배는 7품종으로, 껍질을 껍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황금배’, ‘한아름’, ‘스위트스킨’, 당도가 높은 ‘조이스킨’, 인공 수분이 필요 없는 ‘스위트코스트’, 매력적인 모양과 식미의 ‘소원’과 ‘솔미’가 있다.
- 특히, ‘황금배’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껍질이 선황색으로 얇고 투명해 잘 익은 열매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울산과 안성에서 늦여름에 수확하는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 개발한 중간 크기의 배 품종은 현재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신고’ 품종에 비해 당도(‘신고’ 11oBx~12oBx, 중소과 12oBx~14oBx)가 높고 아삭해 식미가 우수한 특징이 있다.
- 이들 품종 중 사과 ‘아리수’는 53개 업체에 통상 실시돼 지난해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되고 있다. 현재 100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생산 계약한 묘목을 포함하면 500ha 정도 재배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에는 내년부터 유통된다.

- 
- 사과 ‘피크닉’과 ‘황옥’ 품종도 통상 실시해 올해 봄부터 농가로 묘목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15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루비-에스’ 품종은 통상 실시를 준비 중이며, 내년 가을부터 농가에서 묘목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 ‘황금배’는 320ha의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4대 주품종으로 미국, 대만,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수출할만큼 해외에서 사랑받는 품종이다.
 - ‘한아름’도 2007년 통상실시 후 전국에서 100ha 내외로 재배하고 있다. ‘스위트스킨’, ‘조이스킨’은 2013년에 통상 실시해 묘목이 내년 봄부터 농가에 보급된다.
 - 이러한 품종들은 핵가족화로 인한 중간 크기 과일 수요 증가를 충족할 수 있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알맞다. 또한, 신선편이 가공이 쉬운 품종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개발한 이들 사과와 배 품종을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해 재배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후식용이나 나들이용, 학교 급식용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작고 경제적인 과일을 연중 공급하고자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원장은 “국산 사과와 배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보다 생산비는 낮추고 맛이 좋으며 가격이 저렴한 작은 과일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중소형 과일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곰팡이 이용 토마토 발생 담배가루이 방제 기술 선된다.

- 농촌진흥청, 23일 '농업미생물 현장 활용 포럼'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3일 전북 임실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농업미생물 현장 활용 포럼'을 연다.
- 이번 현장 포럼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곰팡이 '이사리아 자바니카 Pf04'를 이용해 토마토에 발생한 담배가루이를 방제하는 기술을 선보이고자 마련했다.
- 또한, 농업인과 병해충 방제 전문가, 미생물제 개발 업체 등이 참석해 미생물제를 이용해 담배가루이 등 토마토 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 이번에 선보이는 곰팡이 '이사리아 자바니카 Pf04'는 담배가루이를 직접 죽여 담배가루이 밀도를 억제하는 토종 곰팡이다.
- 이 곰팡이를 토마토 재배 초기부터 2주 간격으로 처리한 농가의 담배가루이 밀도는 트랩당 2.5마리로 처리하지 않은 농가의 담배가루이 밀도(트랩당 840마리)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정준 박사는 "이번 현장 포럼이 친환경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담배가루이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도농기원 파프리카 「헤스티아」 품종 출원

- 적색, 중대과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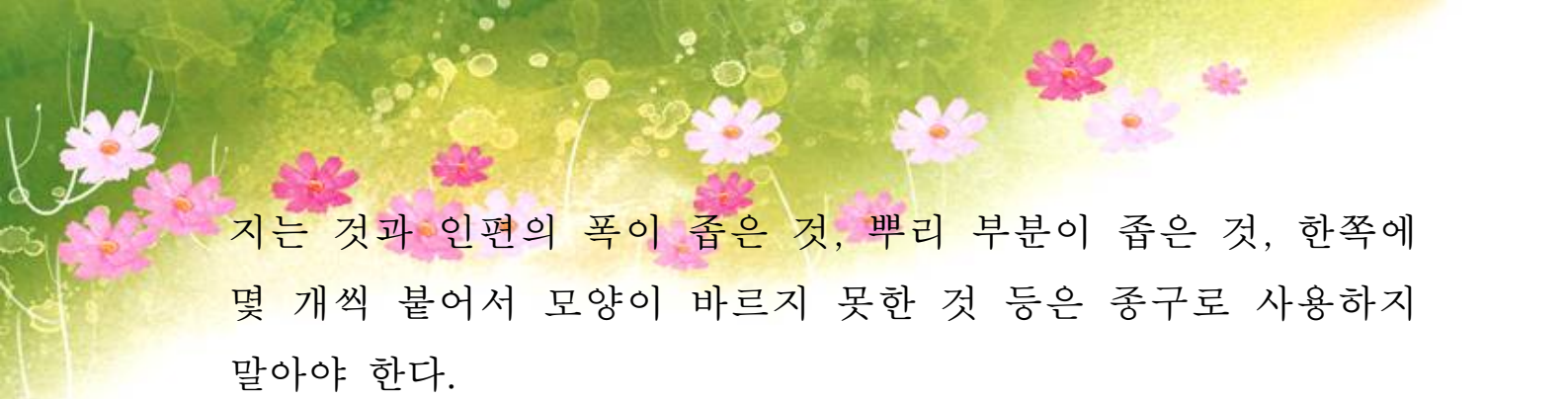
- 파프리카는 고소득 작물로 인식되면서, 국내 재배면적이 2010년 410ha에서 2014년 598ha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북도내 면적은 59ha로 경남, 강원, 전남지역 다음으로 국내 재배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파프리카 10a당 경영비 중 종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4%로 다른 작물에 비해 높아 재배 농가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자는 외국에서 수입된 종자로서, 10a당 2,227천원의 종묘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2011년 과채류연구소 파프리카시험장(군산시 대야면 천수길)을 설립하여 파프리카 신품종 개발과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등에 역점을 두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 특히, 국내 육성 파프리카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 계통 육성을 위해 전통육종법과 병행하여 약 배양 기술과 분자마커활용 등을 통한 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 그 첫 번째, 결과물로 2015년도 국내 여름재배에 적합한 수경재배용 파프리카 신품종 「헤스티아」를 품종 출원하였고 「헤스티아」는 숙과색이 적색이며, 과 크기는 중대과(180~210g)로 과면의 광택이 우수하고, 착과성이 좋아 재배가 용이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내수용과 수출용 생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내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다양한 과색, 과형, 기능성 품종 개발 등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을 위해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우량종구 선별로 고품질 마늘 생산

- 충북농업기술원, 단양 등 마늘 작목반 중심으로
마늘 파종기 대비 종구관리와 선별 컨설팅 나서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마늘연구회 등 도내 거점 작목반을 대상으로 마늘 종구관리 및 선별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컨설팅은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진천, 청원, 보은, 증평의 마늘 작목반을 중심으로 마늘 파종기를 대비하여 현재까지 현장 방문 200농가, 집합교육 600명 등 총 8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파종기까지 계속된다.
- 충북지역 마늘 파종기는 10월 20일 이후의 시기인데 파종용 씨마늘은 9월 중·하순부터 선별 등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마늘의 파종량은 1,000㎡당 약 210~260kg(55~75접)정도가 소요되며, 한지형마늘은 인편의 무게가 4~5g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마늘은 씨마늘을 통해 각종 병해충이 전염되므로 파종 전 뿌리응애, 마늘혹응애, 잎마름병 등 병해충 감염 여부와 인편의 외관 및 뿌리 부분이 건전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뿌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



지는 것과 인편의 폭이 좁은 것, 뿌리 부분이 좁은 것, 한쪽에
몇 개씩 붙어서 모양이 바르지 못한 것 등은 종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씨마늘은 반드시 파종 1일 전 종구를 양파 자루에 넣어 물
20L에 베노밀·티람 수화제 40g, 디메토에이트유제 20ml 혼합하여
1시간 넣었다가 그늘에서 잘 말려 파종한다.
- 충북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 이상영 소장은“철저한 선별을 통한
우량 씨마늘 파종은 명품마늘 생산과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
이라며, “종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강진 전통된장 백정자,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 선정

- 전남도, 전통과 맛의 본고장답게 지금까지 전국 최다 배출 -
- 전남도는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 백정자(강진군, 77세) 대표가 증장 제조 기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5호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올해 신규 지정한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은 총 7명으로, 전남은 이번 지정된 백정자 명인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명의 명인을 배출해 전통의 본고장임을 증명했다.
- 특히 이번 지정 심사에서 백정자 명인은 강진군 군동면 해주최씨 현감공파 33대 종가집 며느리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증장 제조 비법을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아 원형 그대로 보존한 정통성을 가장 높게 평가 받았다.
- 증장이란 곱게 빻은 메주가루, 보리가루, 고춧가루와 함께 찹쌀죽에 섞은 뒤 소금에 절인 채소와 간장을 넣고 따뜻한 곳에 3일정도 발효한 장을 말한다.
- 백정자 명인은 장을 상품화하라는 주변의 권유로 '85년부터 메주를 팔기 시작하였으며, '05년에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30년간 업종에 종사하여 전통장류 제조방법 전승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 특히, 소비자 신뢰를 위해 위생시설을 갖추면서도 전통방식으로 메주를 숙성하고 장을 담그는 과정을 고집하여 전통의 맛을 살리는 한편, 관광, 숙박,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우리 장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 전남도는 광주신세계백화점, 국제농업박람회, 식품박람회장 등에 명인관을 설치·운영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장 내에 운영 중인 식품명인관을 방문하면 전남명인의 제품을 시음·시식하고 구입도 할 수 있으며, 명인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시연을 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박균조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전통의 본고장에 걸맞게 전국 최다 전통식품명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수한남도 전통식품 계승·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능 보유자 발굴 육성과 후계자 교육을 통해 전통식품이 오래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편 ‘식품명인제도’는 정부가 우리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 ※ 전남 명인 현황(13명) : 홍쌍리(매실농축액), 신광수(야생작설차), 유영군(창평쌀엿), 양대수(추성주), 오희숙(부각), 박순애(옛강정), 기순도(진장), 한안자(동국장), 전중석(초의차, 초의병차), 김영숙(북령조화고), 안복자(한과), 김견식(병영소주), 백정자(즙장)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124천톤 매입

- 포대벼 111천톤, 산물벼 13천톤으로 전국 매입물량 24.9% -

- 전남도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금년 12월 31일까지 100일간 실시한다. 전남도에 배정된 포대벼는 전국 388천톤의 29%인 111천톤이며, 산물벼는 전국 112천톤의 12%인 13천톤을 매입하게 된다.
- 매입기간은 산물벼는 11월 14일까지 매입하며, 포대벼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을 완료한다.
- 시군 물량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배정기준인 '14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90%, 농업진흥지역 면적 10%를 적용하여 시군별로 배정한다.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통계청에서 조사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산물벼 매입가격은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40kg당 849원(포장재 420원, 포장임 429)을 차감한 가격이다.
- 산지 쌀값이 결정되기 전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우선 지급금 52,000원(1등급/40kg 기준)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6년 1월중 최종가격 결정 후 정산될 예정이다.
- 매입규격은 포대벼의 경우 40kg과 800kg 단위로 반드시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하고, 품위는 농산물검사기준인 벼 검사규격을 적용하여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게 되며, 특히 수분이 13.0% 미만인 경우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 처리된다.
- 매입대상 농가 및 매입량은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희망하여 리·통 공공비축미곡 매입협의회로부터 출하물량 배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리·통장간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농가가 추인한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약서의 농가별 물량을 매입량으로 한다.

- 매입곡종은 2015년산 일반계 메벼로서 정부가 '15년도 시·군별 매입 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벼(밭벼 제외)에 한하며,
- 박경곤 농식품유통과장은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에서는 규격 포장재를 사용하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분함량 13.0~15.0%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며 “적기 출하하여 매입기간 내에 조기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시·군별 매입품종 이외에 다른 품종을 부정하게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다음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므로 주의를 촉구”했다.
- 전남도는 앞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해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배정 물량 전체가 매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며, 매입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안전관리와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 '15년산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우선지급금 >

(단위 : 원/조곡, 4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조벼	53,710	52,000	49,690	44,230
산물벼	52,861	51,151	48,841	43,381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브랜드 개발 무료 상담회' 개최

- 농식품 브랜드 개발 상담 신청자 10. 8일까지 농업기술원에 신청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전남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 및 브랜드 고급화 위한 「농식품 브랜드 개발 상담회」를 2015 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8일간) 실시한다고 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과 김수일 포장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배송과정에서 약 20회 정도 제품이 충격을 받아 클레임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전용 택배포장은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 금번 상담회는 김수일 포장연구소(소장 김수일)를 초청하여 농업인들이 소비자들에게 농장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고 택배에 안전한 포장박스 개발에 필요한 포장관련 법규정보, 포장기술에 관한 상담과 농식품 브랜드 연구결과 및 소비트렌드 관련 책자, 택배전용 박스(사과, 포도, 딸기, 수박, 계란 등)가 전시된다.
- 상담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2015.10.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상담은 심층상담과 현장상담으로 실시되며, 심층상담은 신청서를 작성한 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상담은 박람회에 참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 농업경영연구소(임경호 소장)은 “2015년 국제농업박람회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포장박스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무료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남 농식품의 브랜드가 고급화” 되기를 바라면서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농식품 포장재 박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상담회”를 확대해 간다고 하였다.

*출처 : 전라남도

◆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농산물 新유통 포스몰 뜬다!”

- 농식품부-aT, 직거래플랫폼에 ICT기술 더해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포스몰(POS-Mall)과 협업하며 산지직거래와 거점물류,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도약을 준비 중이다.

○ 대구 장보고 식자재마트(이하 장보고)는 체계적인 식재료 구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급성장 중인 중견업체다. 2008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도 진출하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좌) 농식품부-aT 포스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직거래하고 있는 장보고 식자재마트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식재료 부담이 큰 지역 중소상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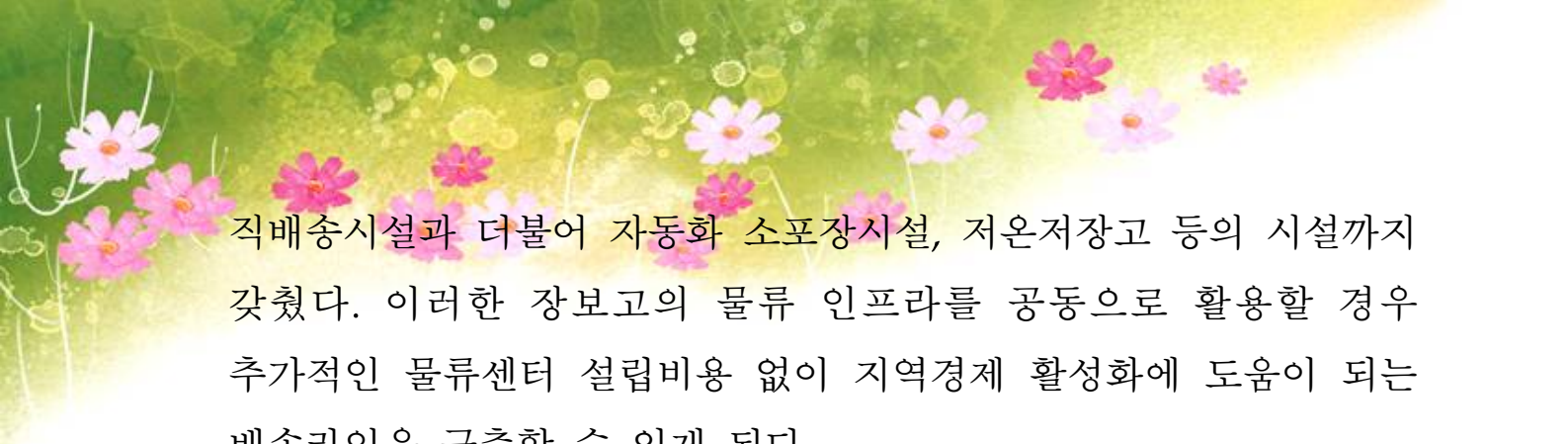
* (우) 장보고에 포도를 납품하는 가족포도원 이정렬 대표는 “포스몰의 안정적인 결제와 판로확대는 농가소득과 지역 농산물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 포스몰의 체계적인 검증을 거친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는 장보고는 산지 농가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인근 중소상인에게 공급하며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두루 갖출 수 있었다.

○ 장보고 서정권 대표는 “포스몰과 협업으로 지난해만 유통비용이 15%까지 감소했다”며 “산지직거래와 로컬푸드 등을 적극 활용해 국산 농산물의 힘을 기르는 게 농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상인과

소비자에게 모두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 장보고는 포스몰을 통해 대구 인근을 비롯하여 제주도와 충청도 지역의 청과를 매월 2천만원 이상 직거래하고 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 등과도 산지직거래를 협의 중이다. 나아가 포스몰과 계약을 체결한 우수농가와 계약 채배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aT 포스몰을 통해 장보고 식자재마트에 포도 및 현미 등을 납품하고 있는 김천의 가족포도원 이정렬 대표는 “대량 직거래가 가능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 것도 매력적이지만 포스몰의 안정적인 결제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실제로 포스몰은 판매부터 정산까지 안정적인 결제 프로세스를 확립해 실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선결제 제도 정착을 통해 생산 농가의 고질적인 위험요소인 외상거래를 개선하고, 부당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 농식품부-aT는 직거래 플랫폼에 ICT 기술력을 접목시킨 포스몰(POS-Mall)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유통경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 농가와 인근 지역의 중소상인의 교류 및 협업을 증진시켜 식재료 품질과 신뢰를 향상시키고,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또한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을 가진 로컬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인근 지역의 나들가게와 중소상인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 일례로 장보고의 경우 산지에서 올라온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곳이 30여 곳, 이를 배송용 냉장차에 다시 싣는 곳이 10곳에 이른다.



직배송시설과 더불어 자동화 소포장시설,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까지 갖췄다. 이러한 장보고의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물류센터 설립비용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배송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포스몰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 중소상인을 위한 안정적인 식재료 유통채널이 확립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신 유통경로 정착으로 전국 산지공급자와 중소상인 모두가 상생하는 창조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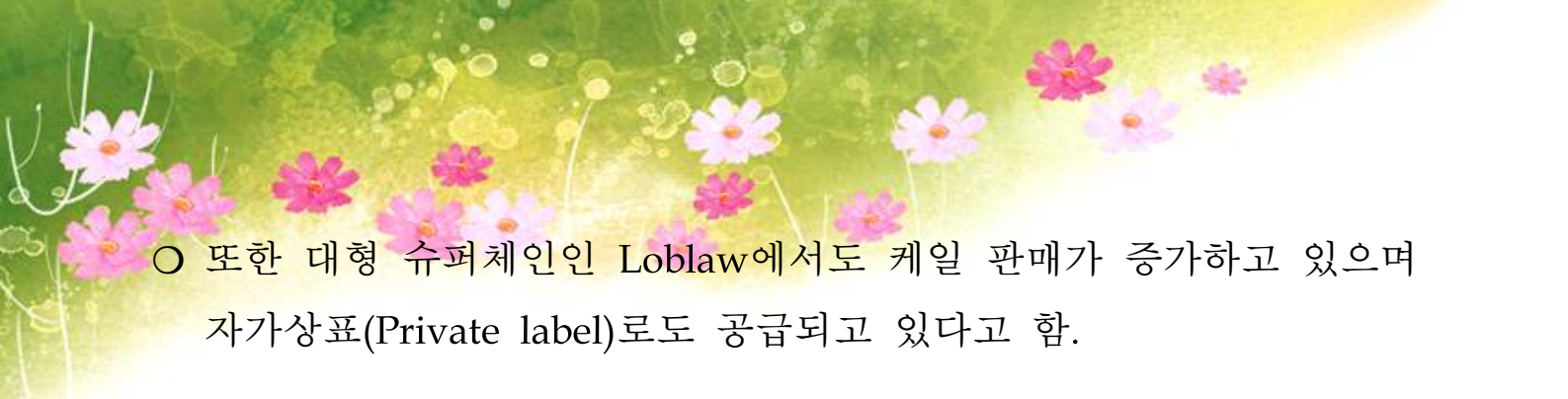
○ 한편 농식품부는 포스몰과 같이 ICT를 활용한 신규 유형의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14년 14.6%인 신유통 비중을 1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캐나다, 케일 등 슈퍼푸드 인기

- 최근 캐나다에서 슈퍼푸드(super foo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슈퍼푸드란 영양이 풍부하고 활성산소들을 제거하고 음식 첨가물의 독성을 해독하여 우리 몸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노화를 늦추는 웰빙식품임.
- 최근 케일이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발표되며 주목 받기 시작함.
- 북미인들의 대표적 질병인 당뇨, 심장병, 암 이외에도 뼈 건강, 소화, 피부와 머릿결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큰 인기를 얻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케일을 '최고의 채소'로 평가되었으며, 체질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한 '주스 클렌즈(Juice cleanse)'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케일 수요가 확대되었음.
- 캐나다 내 채소 섭취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캐나다농산물협회(Canadian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5%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먹지 않았던 채소를 섭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함.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채소로는 케일, 청경채(Bok choy), 램프(Ramps), 콜라비(Kohlrabi), 컬리플라워(Cauliflower)등이 있음. 캐나다 식료품점 Choices Market 관리자는 2014년 가장 판매율이 높은 10대 품목에 두 종류의 케일이 포함되었다고 함.

- 
- 또한 대형 슈퍼체인인 Loblaw에서도 케일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가상표(Private label)로도 공급되고 있다고 함.
 - 최근 건강식품과 슈퍼푸드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채소와 곡물 등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리서치전문기업 Datassential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캐나다 레스토랑에서 케일 메뉴가 6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케일 등 채소를 주재료로 하는 식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지에서는 케일칩, 케일주스 등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쟁이 심하지 않으며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임.
 - 최근 한국 식품이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부 캐나다 바이어들은 한국전통한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식품업계의 트렌드를 발빠르게 반영하여 차별화된 제품개발로 K-Food열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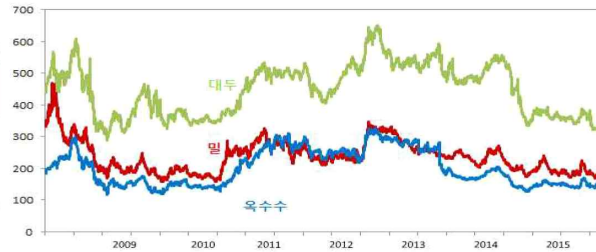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9. 29.(시카고 선물거래소)

옥수수, 대두 매도세 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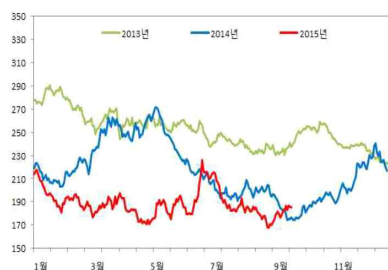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9.29)	전일대비	전월평균 (‘15.8)	2014 평균
밀	185.04	▼0.4%	183	216
옥수수	153.14	▲0.6%	145	164
대두	324.88	▲0.9%	347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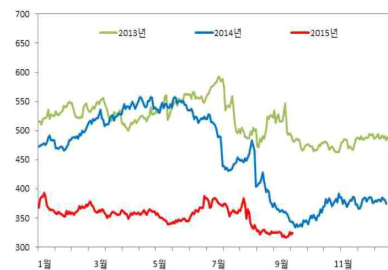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적 밀 풍작, 수출 경쟁 강화 등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하락 마감함. 흑해지역의 겨울 밀 발아가 건조한 기후의 방해에 대한 우려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12월 밀 가격은 50일 이동평균 부셸당 5달러 안팎을 맴돌고 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스킵버링과 매도세로 상승함. 옥수수 주산지 지역 강우 지연 예보와 미국 옥수수 수확 제한 랠리로 부터의 상승 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옥수수 12월물 100일 이동평균 가격은 부셸당 3.88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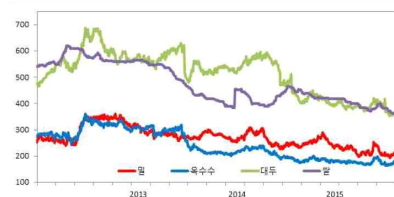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지난 해 대두 작물에 대한 추정을 감소시킬 거란 USDA의 우려에 매도세를 보이며 전일 반등에 성공함. USDA의 분기별 재고 보고를 대기하며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상승하였으나, 미국과 세계 대두 풍작에 대한 영향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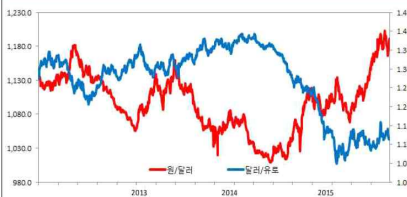
관련동향

- 수출수요 증가와 중국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에 대두 수출 가격 상승
- 국제유가는 미 쿠싱지역 재고 감소 전망 및 주요기관의 비OPEC 공급 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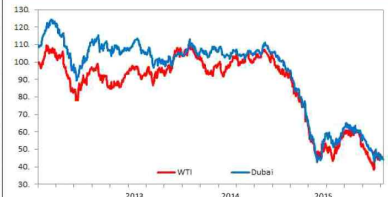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16 ▼0.5%	환율	원/달러	1191.8 ▲0.4%
	옥수수	177 ▼0.6%		달러/유로	1.1179 -
	대두	365 ▲1.1%	국제유가 (US\$/B)	WTI	45.23 ▲1.8%
	쌀	358 ▲0.8%		Dubai	43.95 ▼2.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9.28(수출가격), '15.9.25(환율), '15.9.29(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공모사업 발굴 신청

- 사업량 : 전국 7개소(도별 3개소 신청가능)
- 사업비 : 7억원(개소당)
 -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 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검토내용
 - 반가공업체 사업 신청 안내 후 국산원료사용
 - 3년간 경영실적, 식품안전성 확보 적절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 후 농식품부 신청(10. 2일까지)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유통농장 AI 일제검사 추진

- ▶ AI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유통농장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 일제검사 추진
- 기간 : 9. 17. ~ 10. 24.(1주간)
- 대상 : 89개소(가금판매소61, 유통농장28)
- 검사항목 : 항원 검사
- 검사시료 : 구강, 분변, 환경시료

닭 농장 AI 표준행동요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실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닭농장 AI 차단방역 수칙

❶ 농장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



❷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 전·후 소독 실시



❸ 농장 출입 전후
소독(특히 손, 신발)
및 환복



❹ 축사 내·외부 소독



❺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❻ 쥐·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헨스,
그물망 설치



❼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❽ 장비 등 철저히 소독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닭농장 AI 임상증상

● 주요 임상증상 :

폐사, 발병초기의 침울과 졸음증상,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감소, 벼슬의 청색증, 안면부의 심한 부종·괴사



벼슬 청색증



침울과 졸음증상



폐사

닭농장 AI 표준행동요령 예찰

순서	표준행동요령	여부	
		○	×
1	농장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철저히 통제하였습니까?		
2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까?		
3	농장 출입 전후 소독 및 환복은 철저히 지켰습니까?		
4	축사 내·외부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 하였습니까?		
5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하였습니까?		
6	쥐·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헨스, 그물망을 설치하였습니까?		
7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 및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를 실시하였습니까?		
8	장비 등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였습니까?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관할지자체 ☎1588-4060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오리 농장 AI 표준행동요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실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리농장 AI 차단방역 수칙

1 농장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



2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 전·후 소독 실시



3 농장 출입 전후
소독(특히 손, 신발)
및 환복



4 축사 내·외부 소독



5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6 쥐·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헨스,
그물망 설치



7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8 장비 등 철저히 소독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오리 농장 AI 임상증상

● 주요 임상증상 :

폐사, 발병초기의 침울과 졸음증상,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감소, 벼슬의 청색증, 안면부의 심한 부종·괴사



안면부의 부종 및 눈물흘림



침울과 졸음증상



폐사

오리농장 AI 표준행동요령 예찰

순서	표준행동요령	여부	
		○	×
1	농장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철저히 통제하였습니까?		
2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까?		
3	농장 출입 전후 소독 및 환복은 철저히 지켰습니까?		
4	축사 내·외부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 하였습니까?		
5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하였습니까?		
6	쥐·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헨스, 그물망을 설치하였습니까?		
7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 및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를 실시하였습니까?		
8	장비 등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였습니까?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관할지자체 ☎1588-4060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53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

